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금융감독원 2022.08.29.

최근 10년간(’12년~’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 보험금을 노린 가족 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함

## ’22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금융감독원 2022.08.31

’22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 23개, 손보사 29개) 당기순이익은 5조 6,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6억 원(△1.1%) 감소함. 금리·환율 등 대내외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재무건전성 및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및 수익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부동산 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 2022.08.25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서면회의)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보증준비금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22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2.8.31.~10.11.)

금융위원회 2022.08.31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

2022.08.30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함. 2023년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 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2022.08.30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음. 이에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

##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됩니다!

보건복지부

2022.08.31

2021년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는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감.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PHR : Personal Health Records) 중계시스템임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통계청

2022.08.30

2020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2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7% 수준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함. 2020년 소득 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624만 원(가구소득 대비 48.2%)이며, 소득 5분위는 1,058만 원(가구소득 대비 7.4%)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커지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통합적인 질환관리 강화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8.31

건강수준 향상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만성질환과 급성질환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측정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2022.08.29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등의 실업문제를 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익의원 등 11인

2022.08.30

건강보험제도는 재정 안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지원과 관련한 한시법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일본 화재보험 가입자의 69%가 지진보험에 가입**

일본(Giroj)

2022.08.31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2021년 지진보험 가입률을 포함한 지진보험통계를 발표함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 급부금 지급 대상 범위 축소**

일본(Nikkei)

2022.09.01

일본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급부금 지급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급부금 지급 대상을 9월 말부터 65세 이상과 입원이 요구되는 확진자, 임산부 등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로 범위를 축소할 계획임

**소니생명이 대리점 자격으로 경쟁사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

일본(Sumitomolife)

2022.08.26

소니생명이 판매채널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사의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포기하고, 전문 회사인 메디케어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은 건강보험상품을 2023년 1월부터 판매할 계획을 발표함